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 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  
<http://www.jthink.kr>

▪ **문 의** :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김재구 연구위원  
(063-280-7135, 011-9746-6890)

▪ **담당실장**: 연구실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  
(063-280-7111)

**보도시점** : 2018년 5월 15일(화)부터

## 국토발전축,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전환해야

**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축이 국가균형발전 저해  
지역간 연계강화 및 상생발전을 주요 전략으로 국가발전 선도 필요**

-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지방(비수도권)의 요구를 모두 포괄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기존 수도권 중심 국토발전축의 대항마이자 새로운 대안으로 “국가균형발전축”이 제안되었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『지방 중심의 국토발전축 대전환, 전라북도가 선도하자』라는 이슈브리핑(167호)을 통해 새로운 국토발전축으로 “국가균형발전축”을 제안하고, 전라북도가 선도하기 위한 부문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.
-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부축 등 수도권 중심의 남북으로 국토개발 및 발전축이 형성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심화되고 있다.
- 이와 함께 저성장 기조,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등 비수도권은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아닌 지방(비수도권)이 중심 되는 국토발전축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.

- 전라북도 역시 현재 국토발전축의 영향에 따른 남북 중심의 인프라 및 연계축으로 지역내 동서간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.
- 새만금과 혁신도시, 동부권을 연계하는 지역성장축의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서축 중심의 수평적 교류 강화가 전라북도 지역성장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실정이다.
-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토발전축에 대한 요구는 동서축, 강호축, 한반도 허리경제권(중부권), 영호남권 등 지방을 주축으로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.
- 그러나 국가적으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수도권 중심 국토발전축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국토발전축 대전환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
- 따라서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의 요구를 모두 포괄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기존 수도권 중심 국토발전축의 새로운 대안으로 “국가균형발전축”으로 지방의 공동대응이 요구된다.
- 특히 전라북도는 지정학적 특징을 살려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“국가균형발전축” 설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. 이를 위해서는 무주-대구 고속도로, 전주-김천 철도 등 도서통합 SOC, 전기·자율차 등 특화산업 중심의 지역간 산업부문 연계협력 그리고 가야역사문화권, 백두대간 산림치유 등 문화관광부문의 연계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.
- 김재구(연구책임) 박사는 “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발전축인 ‘국가균형발전축’을 바탕으로 지역차원의 공동대응을 시작해야만 한다”라고 주장했다.